

# 주춤하던 'AI 박람회'... 서울·부산서 잇따라 날갯짓

'AI코리아 2020'  
부산 벡스코서 9월 17~19일  
'AWC 2020 인 부산' 함께 개최

'제3회 국제인공지능대전'  
삼성동 코엑스에서 9월 23~25일  
AI기업·기관 등 180여개사 참가

인공지능(AI) 대표 협회와 지방자치체가 코로나19로 그동안 미뤄왔던 대규모 AI 박람회를 하반기 서울, 부산에서 잇따라 개최한다.

부산시는 한국인공지능윤리협회 등과 손잡고 'AI코리아 2020' 행사를 부산에서 9월 개최하고, 한국인공지능협회도 9월 코엑스에서 '제1회 국제인공지능대전(AI 엑스포 코리아 2020)' 행사를 진행한다. 또 AI의 대표단체인 지능정보산업협회도 매월 회원사들이 만나 교류하는 자리인 네트워킹 만찬과 조찬포럼을 5월부터 재개해 굵직굵직한 AI 행사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국제인공지능대전은 코로나19 사태로 5월에서 한 차례 미뤄졌지만, 철저한 방역을 통해 하반기 행사는 예정대로 진행할 계획이다.

부산시가 주최하고 벡스코, 부산정보산업진흥원이 공동 주관하는 'AI 코리아 2020'은 9월 17일~19일까지 부산 벡스코에서 개최된다. 전국 지자체 최초로 개최하는 대규모 AI 박람회로, 한국인공지능윤리협회가 '인공지능 윤리대전'을 맡아 진행할 계획이다.



9월 17일에서 19일까지 'AI 코리아 2020'가 개최되는 부산 벡스코.

/뉴시스



지난해 개최된 '제2회 국제인공지능대전' 개막식 장면.

/AI EXPO KOREA 통합사무국

이 행사는 AI 전시회·콘퍼런스로 구성되며, 유럽·북미 대사관들과 협력해 글로벌 AI 석학들을 한 곳에서 만날 수 있는 'AWC 2020 인 부산'도 개최된다. 이번 행사는 부산시가 스마트시티사업과 블록체인의 특구로 지정된 데 이어 AI 중심도시로 나아가기 위해 올해 처음 기획한 것이다.

AI 전시회 중 최대 규모인 1만 3000㎡ 공간에서 펼쳐지며, AI 정책관·부산 AI 특별관·AI 기술전시관·AI 교육전시관·블록체인 특별관 등으로 운영된다.

한국인공지능윤리협회는 이 행사 중 '인공지능 윤리대전-AI 포 휴먼(가제)'로 9월 17일~18일까지 '인공지능 윤리대전'을 진행한다. 이번 콘퍼런스는 AI 윤리의 원칙 및 개념, AI 윤리의 주요 사례 및 이슈, 산업별 AI 윤리의 적용 방안 및 전망 등 총 3세션으로 진행해 학계, 연구계, 산업계 전문가를 초빙해 강연을 진행한다.

한국인공지능윤리협회 관계자는 "이번 행사는 AI가 급속히 발전해 발생하는 기술적 역작용과 선하고 안전한 AI인 인공지능 윤리에 대한 개념을 공유하는 자리"라며 "사례별로 AI 윤리 알고리즘 개발 및 적용방안에 대해 학계와 기업계의 연구결과와 전망을 살펴볼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국인공지능협회가 ICT 전시기업 서울메세인터내셔널과 공동으로 주최하는 '제3회 국제인공지능대전'은 9월 23일~25일까지 사흘간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개최된다. 이번 행사는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에 동참하고 참가사와 관람객의 안전을 위해 철저한 방역 지침과 현장 대응 매뉴얼을 마련해 진행한다. 특히, 코로나19로 직접 전시장을 방문하지 못하는 바이어와 참가업체에게는 원격상담 지원 시스템을 제공할 것으로 했다.

이번 행사는 AI 전문기업과 기관 등 180여개사가 참가하고, 250부스 규모가

마련된다. AI 최신 기술과 플랫폼·솔루션을 소개하고 AI 비즈니스 모델, 국내외 AI 기업의 비즈니스 전략, 적용 및 도입전략 등을 발표할 계획이다.

특히 코로나19로 언택트 문화가 시대적인 주류로 자리잡음에 따라 'AI 언택트관'을 별도로 마련했다. 이 자리에서 ▲AI 화상솔루션, 교육 솔루션, 비대면 입출입 기기 등 솔루션과 ▲AI 기본기술로 머신러닝, 딥러닝, 뉴럴 네트워크, 강화학습, 자연어, 음성인식, 이미지 인식, AI칩·부품, 클라우드 등 기술을 소개하고 ▲AI 애플리케이션 및 서비스 분야로 챗봇, 로봇 프로세스 자동화(RPA), 자율주행, 의료·헬스케어, AI 로봇, 웨어러블 기기, 스마트팩토리, AI콜센터(컨택센터) 등을 소개한다. 또 부대 행사로 '인공지능경진대회', 'AI 유저 컨퍼런스', '매스웍스 딥러닝 세미나', 'AI스타트업 액셀러레이터 데모데이', 'AI 인더스트리 서밋 2020', 'AI

엑스포 서밋'도 개최한다.

지난해 7월 개최된 '제2회 국제인공지능대전'은 157개 AI 관련 기업이 참여하고 관람객 등 2만1321명이 참여했으며, 올해는 화웨이, SK네트웍스서비스, 한국휴렛팩커드(HPE), 자일링스, 코그넥스, 링크제니스, 알체라 등 30여개 글로벌 및 국내 AI기업들이 새롭게 참가한다.

지능정보산업협회는 3월과 4월 네트워킹 월례 행사를 취소했지만, 지난달 21일 'AIIA 5월 네트워킹 만찬'을 개최한 데 이어 이달에도 월례 조찬과 네트워킹 만찬을 잇따라 진행한다. 10일 오전 'AIIA 6월 조찬포럼'을 개최한 데 이어, 18일 저녁에는 서울시 서초동에서 'AIIA 6월 네트워킹 만찬'을 갖는다. 이 행사에서는 렉스젠 이강일 연구소장이 참여해 '딥러닝 영상처리 기반 지능형 교통 솔루션'을 소개할 계획이다.

/채용정 AI전문기자 echo@metroseoul.co.kr

## 삼성전자, 폴더블폰 판매 호조 6년만에 평균판매가격 최고치

ASP 292달러, 전년동기비 8.5% ↑  
갤럭시S20 시리즈·갤럭시Z플립 성과

삼성전자 스마트폰 평균판매가격(ASP)이 6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갤럭시Z플립'을 중심으로 한 폴더블폰 판매가 호조를 보였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14일 시장조사업체 스트래티지 애널리틱스(SA)에 따르면 1~4분기 삼성전자 스마트폰 ASP가 292달러로, 전년 동기 269달러 보다 8.5%, 전분기 242달러 보다 20.7% 늘었다.

이는 삼성전자 ASP가 297달러였던



삼성전자 갤럭시Z플립 /손진영기자 son@

2014년 2분기 이후 최고치다. 2014년은 스마트폰 시장이 한창 성장하고, 경쟁업체도 적어 값이 비싼 플래그십 스마트폰 위주로 판매가 호조를 띄었던

시기다.

올해 1분기 높은 ASP를 견인한 것은 2~3월 출시된 갤럭시S20 시리즈와 폴더블폰 갤럭시Z플립이다. 갤럭시S20 시리즈 중 가격이 가장 높은 최상위 모델인 갤럭시S20 울트라 모델의 판매 비중이 회사 예상보다 높게 나타났다.

특히 갤럭시Z플립은 가격이 165만원으로, 240만원에 육박했던 갤럭시 폴드보다 70만원가량 낮아져 폴더블폰의 대중화를 노렸다. 휴대성과 디자인 등 강점에 힘입어 작년 출시된 갤럭시 폴드에 이어 '완판' 행진을 이어갔다.

/김나인 기자 silkni@

## “기업 자금난 해소 위한 SPV 서둘러야”

(회사채·CP·단기사채 매입 기구)



### 대한상공회의소

정부에 SPV 조속 출범 요청  
6월 자금 수요몰려... 속도 중요

대한상공회의소가 자금사정이 급박한 기업들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부탁했다.

대한상의는 최근 정부에 저신용등급 포함 회사채·CP·단기사채 매입 기구인 SPV를 조속히 출범시켜달라 요청했다고 14일 밝혔다.

대한상의는 코로나19 위기에 나온 안정화 대책이 효과를 봤지만, 채권시장 안정펀드, 회사채담보부증권(P-CBO) 발행지원 등 조치는 우량 회사채와 기업 어음(CP)만을 대상으로 해 비우량 채 시장이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은행대출 자금조달도 어려운 경우가 많아 상대적으로 유동성 부족 상황에 놓여있다는 것.

상의는 “정부가 40조 규모의 기간산업 안정기금을 설치하기로 하면서 ‘국민경제, 고용안정 및 국가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조선·항공·해운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며 “이 업종의 기업들이 저신용 등급 회사채 시장에 많은 상황에서 지원범위를 저신용 등급으로 확대하는 조치는 ‘속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저신용등급 기업의 자금갈증을 풀어주기 위해서 정부는 지난 5월 ‘저신용등급 회사채·CP·단기사채를 매입하는 SPV 설립방안’을 내놓았다”면서 “그러나 SPV 재원조달에 필요한 조치들이 아직 이뤄지지 않아 SPV의 출범과 가동시기가 언제가 될지 불확실한 상황이다”고 말했다.

실제로 대한상의에 따르면 올해 내 만기가 도래하는 비우량 회사채는 6월과 9월에 53%(2.5조)가 집중됐다. 6월에는 기업의 상반기말 결제자금 수요, 금융회사의 분기말 건전성 평가 등도 예정됐다.

한국은행의 금융기관 대출행태 서베이 결과에서도 기업 매출 감소와 경기 불확실성 증대에 따른 여유자금 확보 등으로 기업의 자금수요는 2분기에 크게 높아진 상황이다.

대한상의는 올해 민간부분의 자생력이 부족하다는 점을 들어 지속적인 기업 금융지원 필요성을 강조했다.

상의의 경제성장 기여도 분석에 따르면 2019년 경제성장률 2.0% 중 정부가 1.6%p, 민간이 0.4%p를 담당했지만 올해는 정부 기여도가 1.2%p, 민간은 0.4%p로 민간부분 기여도가 크게 낮아질 것으로 추정된다. 또 기업의 자금사정을 보여주는 지표인 기업 자금사정 BS I는 11년 5개월만에 최저치를 기록해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만큼 어려운 수준으로 나타났다.

/김재용 기자 juk@

## LGU+, 자율주행서비스 실증사업 추진

오토노머스에이투지와 MOU  
5G 통신망 등 V2X 기술 지원

LG유플러스는 오토노머스에이투지와 자율주행 서비스 실증 사업에 나선다고 14일 밝혔다.

양사는 지난 12일 LG유플러스 용산본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기술 협약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

고, 실무협의단 구성·운영 등 세부적인 협력방안을 마련해나가는 데 합의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LG유플러스는 자율주행 서비스를 위한 5G 통신망과 함께 다이나믹 정밀지도, 고정밀 측위(RTK·차량 위치 cm 단위 측정) 솔루션 등 V2X 기술을 지원한다.

/김나인 기자



LG유플러스 모빌리티사업담당 강종오 상무(왼쪽)와 한지형 오토노머스에이투지 대표가 세종시 자율주행 실증 사업에 대한 업무협약을 맺고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LG유플러스